

개 회 사

종단의 소중한 발원들을 실천하면서 정유년을 환하게 열어가는 직할교구 주지스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가람수호와 본연의 수행정진, 그리고 사회와 이웃의 어려움을 보듬으며, 지역 곳곳에서 불법을 흥포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할교구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항상 선도적이고 종단의 모범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모두의 숙원이자 총본산 성역화의 일환인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의미있는 진전을 한걸음씩 이루어 가고 있으며, 승려복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실시하면서 혜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고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천 역시, 모두의 진력으로써 가시적인 성취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처럼 깊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옛 봉은사 부지에 예정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사옥 건립에 대응하는 종단의 고심에, 많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 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졸속이고 전형적인 특혜개발로 봉은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는 종교적 범주를 넘어 우리 사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족의 역사이자 전통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찰과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은 비단 봉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문제 우리 사찰의 문제로 삼아주시고 늘 함께 고민하면

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종단의 현안과 본연의 종교적 책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갈등위기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동안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이 이어져 왔으며, 급기야 거대한 민심의 물결이 크게 맞서는 매우 걱정스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분열과 다툼으로 번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안정을 되찾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곳곳의 주지스님과 사찰이 시민들의 마음을 깊게 살피주시고 여러 걱정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은에 보답하겠다는 원력을 실천하면서 사회와 성실하게 소통하고, 시민 모두와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직할교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지역사회의 불교 위상 및 포교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교구보다 더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주지스님들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소중한 성취는 직할교구뿐 아니라 종단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종단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항상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교구의 성취가 곧 종단의 기준이자 모범입니다. 종도이기에 가져야하는 종단관과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의미있는 실천을 위해 언제나처럼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사회와 이웃 모두의 행복으로 향기롭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총회 의장 자 승